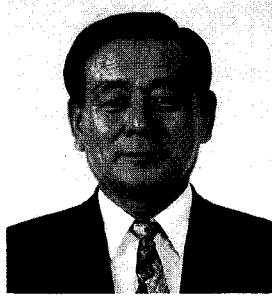


양질의 원유는 낙농업의 기본이다



조 광 현

전국낙농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95년을 마무리짓는 을씨년스러운 계절을 맞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연초에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원했건만 국가나 사회는 물론이고 낙농업에도 크나큰 격량의 한해였다.

외국 농산물이 홍수같이 밀려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은 수입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던 중 국내산 시판 우유내 약품의 잔류문제는 낙농업을 태풍의 눈으로 휘몰아쳐 버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비자는 합법성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정성을 먼저 따지고 세계적인 우유검사기준에서 우리 우유를 비교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매스컴이 유질 시비에 대한 불을 당겨 소비자로부터 빗발치는 전화상담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으며 목장에서 지나친 보도에 대한 항의까지 적지않아 유업체,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매스컴과의 3각 정글에서 발가벗은 꼴이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격으로 치열한 국내시장을 놓고 판매 우위를 확보하려는 업체간의 홍보 전략은 소비자를 더욱 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작금의 상황을 낙농에 주기적으로 발생된 파동으로 넘기기에 너무나 심각한 사태이다. 왜냐하면 '70년의 대장균사건, '88년의 유방염사건은 원유수급이 절대 부족한 시기에 발생하였으나

낙농업의 주체인 우리 농가에서는 뼈아픈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여 양질의 원유는 낙농업의 기본이라는 철저한 자세로 심기일전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벌써 보도에 의해서 드러난 몇몇 유업체들은 원유를 미쳐 소비하지 못해 분유를 가공해야 하는 현실에 닥쳐있다. 이제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우리 모두가 잘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협동의 위기의식만이 이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지금은 원유의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론 국내 생산량은 부족하지만 개방화에 따른 외국 유제품의 무차별 도입이라는 외압이 주원인이다. 이미 호주로부터 S유업이 멸균유를 들여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소비자를 놓고서 각축을 벌여야 하는 이와 같은 협동조합과 유업체의 현실을 우리 낙농가는 처참한 심정과 걱정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한차원 높은 도약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가장 골격이 되는 문제는 차제에 법상의 미비점이 발굴 보완되어 국내 낙농을 보호하는 선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정부의 몫이라 하겠다.

낙농업의 주체인 우리 농가에서는 뼈아픈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여 양질의 원유는 낙농업의 기본이라는 철저한 자세로 심기일전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벌써 보도에 의해서 드러난 몇몇 유업체들은 원유를 미쳐 소비하지 못해 분유를 가공해야 하는 현실에 닥쳐있다. 이제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우리 모두가 잘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협동의 위기의식만이 이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특히 정부는 식품가공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수급안정이 요구되는 우유의 가공업무를 불합리하게 이원화시켜 관장하므로서 수급안정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원료생산 단계는 농림수산부에서, 그리고 가공 유통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농림수산부로 일원화시켜 수입개방에 따른 우유의 수급안정과 경쟁력 확보에 적극 대처하여 붕괴의 길로 치닫고 있는 낙농산업을 보호 발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혼란스러웠던 올해년을 마무리 짓는 12월의 길목에서 우리 모두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슬기를 발휘하여 변혁과 전환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질에 대해서 만든 선진낙농국 수준을 유지하여 앞으로 유질시비를 단절하고 우리 모두가 더 넓은 낙농의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찬 도약의 새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